조계종 사서실장에 금곡 스님

3월 21일, 설정 스님 '下心' 당부



조계종 사서실장에 양양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신임 사서실장에 금곡 스님〈사진〉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금곡 스님은 그간 오랫동안 활동하며 누구와도 잘 융화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서실은 어느 곳보다도 더 하심하고, 오는 이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불쾌감을 느끼거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서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곡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 재무부장 · 호법부장 및 보광사 · 흥천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선암사 · 낙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전통불교의식 교육에 앞장"

태고종 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 취임



광주전남종무원장에 취임한 월인 스님(오른쪽)이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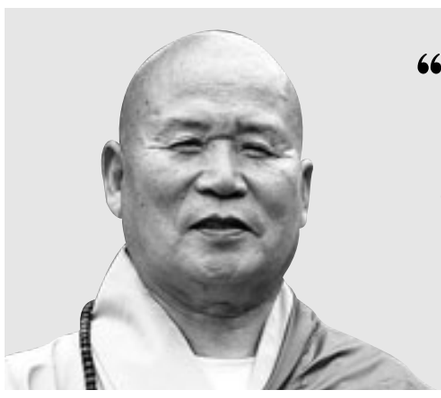
제16대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에 월인 스님이 취임했다.

월인 스님은 3월 18일 광주 운림동 수자타에서 열린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이 · 취임식서 공식취임하며 '전통불교의식전수관' 건립과 종단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제16대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에 취임한 월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도들의 자질 향상과 잊혀가는 전통불교의식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2000평의 부지를 마련해 전통불교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인 스님은 1967년 광주 증심사 지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광주 광덕사 주지, 광주전남종무원 총무국장,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법륜사를 창건했다. 2014년 광주시무형문화재 제23호 전통불교영산재로 지정돼 불교의식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시 · 서화에 조예가 깊은 월인 스님은 2015년 전남미술대전 초대작가 겸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광주미술대전에 입선과 특선, 우수상 등을 20회 넘게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평화의불 든 1080불자 북녘 찾아 밝힐 것"

Interview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양에 평화의불 봉안 추진

신계사 등 사찰 순례도 계획

1080명 순례단 구성해 교류

조계종 제210차 임시중앙종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가운데 그동안 평화의불의 북한사찰 봉안을 추진해온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이 남북불교교류에 앞장선다. 108산사순례기도회와 108평화순례단, 53선지식순례단을 바탕으로 1080명 규모 순례단을 구성, 평양 광법사를 비롯해 금강산 신계사 등 북한 5대 사찰에 평화의불을 봉안할 계획이다.

선묵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와 108평화순례단 등은 사찰순례를 넘어 먹거리 구매를 통한 농촌과의 상생, 순례 지역 소외계층 돕기 등 불교계를 대표해 다양한 사회운동도 펼쳐왔다. 이런 까닭에 남북교류에서도 신행활동을 통한 남북불교도 교류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2010년 신계사 성지순례를 추진한 108산사순례기도회는 그동안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전국 주요 사찰과 군사찰 100여 곳에 봉안했다. 이번 종회 결의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진행하는 '평화의 불' 봉안을 종단 차원에서 북녘에도 밝히길 촉구하는 것이다. 종회에서는 조계종 민추본 등 종단차원의 주최 단체를 명시하고, 결의문 자구를 수정해 차후 공식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선묵 혜자 스님의 발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동안 민간이 진행해온 물적교류에서 인적교류로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 당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된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신계사 성지순례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경색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혜자 스님은 "신계사 순례를 준비하며 불단에 올릴 공양미 300석을 모연하는 등 각별한 준비를 했지만 총격 사건으로 무산됐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급진전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며 "종단의 공식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순례는 '평화의 불' 봉안이란 구체적인 불자들의 구심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일차적으로 평양에 위치한 광법사와 금강산 신계사에 평화의불을 봉안하는 것을 추진하며 이후 묘향산 보현사, 개성 영통사 등에서도 순례를 진행한다.

혜자 스님은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 당시 복원의 길을 연 고인들의 극락왕생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글을 풍경에 새겨 헌공한 바 있다"며 "그때의 감동을 불자, 그리고 국민들이 느꼈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첫발은 한민족 정체성을 간직하고 계승해온 한국불교계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스카우트, 비전 2027로 활성화"

제2대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취임

교육 확대 · 지도자 양성 앞장

해외 자매결연 지속 추진도



불교 스카우트를 이끄는 새 수장에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사진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취임했다. 성행 스님은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제2대 연맹장 취임법회서 "스카우트 활동 프로그램을 현재 활동이 미미한 전국 사찰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적극 권장해 신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우리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행 스님은 취임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불교 스카우팅'을 골자로 2027년까지 10년간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스님은 그동안 불교스카우트에 대해 사단법인 동련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로 구성돼 있던 불교계 어린이청소년활동에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음을 강조한 뒤 창립 5주년을 맞은 불교스카우트가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대표단체로 자리 잡길 서원했다.

스님은 미래비전으로 "첫째 야영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스카우트 교육방법을 기반으로 5000명 이상의 불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성 함양을 통한 불교스카우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장하겠다. 둘째는 포교를 담당하는 스님과 포교사, 국제포교사와 일반신도 그리고 종무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교스카우트 지도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셋째는 템플스테이 등의 활동을 통해 일선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성함양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넷째는 일본, 태국, 대만 등 불교스카우트 회원국과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연맹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과 후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우리 불교는 신도가 줄어들고, 출가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불교스카우트가 사찰과 종립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와서 신나는 스카우트 활동과 종교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봄날에 찾아온 자비의 쌀

탑사 · 쌍봉사 백미 1,800㎏ 전달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3월 19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홀몸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총 20㎏ 90포를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차례 불전의 공양미를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연탄나눔, 고추장 나눔 자원봉사축제 등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찾아가는 경로당 '孝 잔치'

부산 옥련암, 지역경로당 위문행사



부산 옥련암(주지 지연)은 3월 20일 동주경로당을 방문해 '효 잔치'를 개최했다. 효 잔치는 지난해 9월 시약경로당에 이어 두 번째다. 옥련암은 이날 경로당서 민요 노래한마당과 색소폰 연주 등의 공연을 펼치고, 손수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경로당을 방문해 부처님 자비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짜장면으로 전한 이웃사랑

부산 용호복지관, '사랑의 짜장면 데이'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3월 20일 관내에서 '사랑의 짜장면 데이'를 열고, 지역 저소득 어르신 800여 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행사에는 (사)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가 함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피부 · 치아건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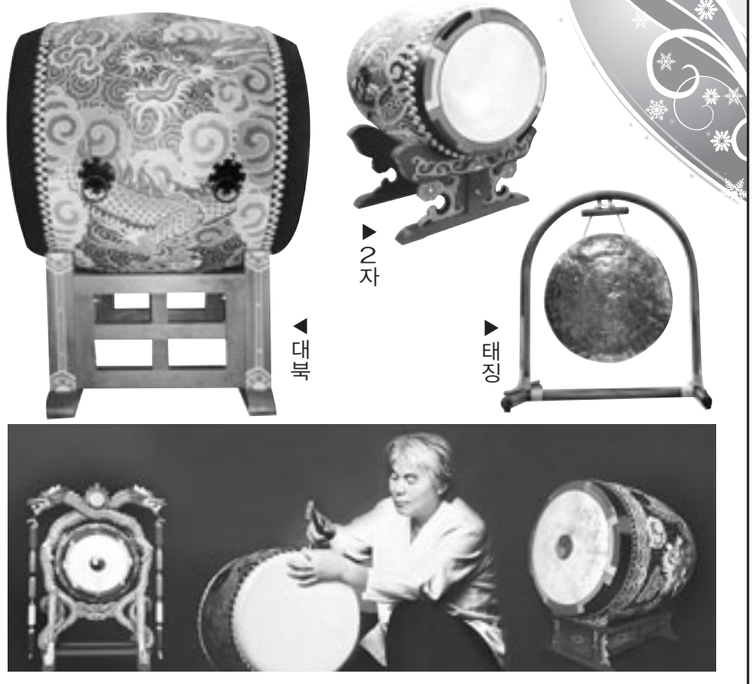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 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 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 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전생의 기억이 현생을 지배한다"

전생상담사 모집

옛 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성어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생 상담의 특징은 단지 전생을 체험하는 자체 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이나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면을 이용한 전생 상담 기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일입니다.

20여 년간 5,000여 명의 전생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기법만을 엄선하여 누구나 쉽게 배워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수해 드립니다.

TV 방송에 300여 회 출연한 임재형 원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개 강 :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총 5회 과정
일 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교육비 : 50만원 (수련 CD 및 교재 제공)

한국최면과학원 (042)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석교동 주민센터 옆)